

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

2025년판 정오표

(2025년 06월 26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5년 5월 28일 발행된 “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
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” 2025년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 2025년판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5년 06월 26일 기준)

2025년 05월 28일 발행된 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에서 추가된 (보완) 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	수정내용
p. 92 하단	<p>2. 甲은 사망한 A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X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. 甲에게는 형제·자매가 없어 甲의 아버지인 乙이 사망하자 甲은 乙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는데, X 토지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경작하던 것을 甲이 이어받아 경작하는 것이었다. 甲은 A가 사망하였으나 A의 상속인인 B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고 甲 앞으로 X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2018.4.5. K지방법원에 ‘1999.4.7. 甲이 A로부터 X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A는 甲에게 X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’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訴를 제기하였다. 그러나 사실은 甲은 X 토지를 A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, 자신의 아버지인 乙이 X 토지를 경작하였던 경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. 甲은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A를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‘대신 전해 주겠다고’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았다. 甲은 위 소송절차에서 2018.7.5. 승소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0.2. 甲 명의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위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적 정보장치 매체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경료되었다.</p> <p>A의 상속인인 B는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2018.12.10.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. 甲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안에 보관된 서류를 뒤지고 친인척과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하였다. 甲은 이를 통해 아버지 乙의 삼촌인 丙이 X 토지를 사실상 경작 관리하던 丁의 소유로 믿고 1946.2.경 丁으로부터 이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 사용하다가 1961.5.경 乙에게 증여하였으며, 乙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. 甲은 이를 토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X 토지에 관하여 점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甲 소유로 기재된 등기 기재내용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.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B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는 2019.5.17. 기각되었다. B는 위 1심 패소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, B는 다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어 B에 대한 위 패소판결을 확정되었다.</p> <p>▶ 甲의 죄책(성립하는 죄가 있는 경우 죄명, 적용법조, 죄수관계 포함, 다만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하고,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). (20점)</p>	내용추가